

“베를린 소녀상 지키자”...법적 대응 나선다

설치 주관한 코리아협의회 철거명령 정지 가치분 신청 독일 현지·한국 온라인 청원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區)의 허가를 얻어 지난 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요청을 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으로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가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퀘

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 문구가 들어있다. 또, 정의 기억연대가 기증했다는 문구가 있다.

한 소식통은 “미테구가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에 대한 요구가 먼저라는 판단이 법률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면서 “행정당국의 무리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이다.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기한은 1년으로 연장이 되려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법적 다툼으로는 상당 기간 소녀상을 그 자리에 둘 수 있지만, 1년 간 버티며 사실상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더라도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다.

연장 여부는 그동안 소녀상에 대해 해외에서 일본 측이 철거 명분으로 주장해오고 독일 측이 수용한 한일 간의 분쟁요인이 아닌, 국제적인 전쟁 여성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한 보편적 인권 문제의 상징물이라는 점을 현지 시민사회에 납득시키는 게 관건인 셈이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청원사이트(www.petitionen.co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1769명이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인 김소연씨는 페이스북에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개편지를 통해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지 시민들과 교민들은 13일 정오에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세 번째로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2〉 가사도

가사도(賈似道, 1213-1275)의 자는 사현이고 호는 추학이며 절강성 태주 천태 사람이다. 이종(理宗)의 가귀비의 동생으로 남송말 재상을 지냈다. 남송 관료 가섭의 아들로 누이가 이종의 후궁으로 들어가 가귀비가 되면서 출세의 길에 들어섰다. 어릴때부터 비행을 저지르는 등 품성이 좋지 않았다. 집안 덕에 음보로 가흥사장이 되었다. 이후 태상승, 군기감, 경호안무제 차대사가 되었다. 1254년 동지추밀원사를 거쳐 1256년 부재상 격인 참지정사가 되었다.

몽고는 남송을 정벌해 중국을 지배할 계획을 세웠다. 몽고의 3대 칸인 헌종 몽케가 이끄는 발송군이 남송으로 진격했는데 몽케가 진중에서 급서했

부패한 장군들과 관료들을 대거 숙청했다. 특히 환관의 발호를 철저히 막았다. 외척의 영향력도 차단했다.

풍요로운 남송조차도 대몽고 전쟁은 국력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해 이익을 창출하는 화적 제도를 운영했는데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남송 정부가 화적으로 얻는 식량이 연간 800만석에 달했는데 대금 지불을 화자(倉子) 어음으로 했다. 농민들은 화자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종의 고통을 겪었다. 가사도는 화자 제도에 인가 없는 화적 대신 공전법(公田法)을 도입했다. 200묘 이상의 토지 가운데 1/3을 정부가 사들여 공전할 계획을 세웠다. 몽고의 3대 칸인 헌종 몽케가 이끄는 발송군이 남송으로 진격했는데 몽케가 진중에서 급서했

남송말 재상...왕조 몰락 앞당긴 간신

다. 약주(鄂州) 공격을 책임진 몽케의 동생 쿠빌라이는 몽고로 회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막내동생 아리크부가가 후임 칸을 선임하는 회의를 몽고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불참시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쿠빌라이와 가사도는 비밀리에 협약을 맺었다. 몽고로 돌아가야 하는 쿠빌라이가 철수시 남송군이 추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기 위해 가사도를 매수했다는 설도 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가사도가 쿠빌라이를 추격하지 않았다고 약속해 협약을 체결시켰다는 설도 있다. 여하튼 가사도는 도하중인 몽고군을 습격했는데 죽은 사람이 170여명에 불과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을 하면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 신형 장비들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열병식 자체는 물론 공개된 북한의 ICBM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석상에 2차례나 마주 앉은 이후, 서로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대지주와 중앙 관료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대지주에 의한 토지 겸병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가 후일 〈간신전〉에 들어간 이유도 이러한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원나라를 세운 몽고의 쿠빌라이는 중국 통일을 위해 1273년 다시 남하했다. 남송 공략의 최대 장애물은 군사 요충지인 양양이었다. 몽고군은 양양을 포위했는데 재상 가사도는 무슨 이유인지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양양을 지킨 송군의 지휘자인 여문환은 남송을 향해 통곡했다고 한다. 결국 4년만에 번성이 함락되었고 양양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양양의 남송군은 몽고군에 항복했다. 몽고군의 공격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가사도는 집방원에 한겨우 유혹과 도박 및 서화 감상으로 소일했다. 패전의 소식이 황제인 도종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다. 1275년 2월 무호 전투에서 남송군은 대패했다. 정병 13만을 동원했지만 몽고의 군사력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강화를 요청했지만 몽고군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가사도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어 복건성의 장주에 유배되었는데 정호신에게 살해되었다. 정호신의 부친이 가사도에게 학대를 받아 그 원한을 갚은 것이다. 변소에 데려가 죽었다.

유럽 식당들 다시 줄줄이 영업 중단

코로나 폭증에 '셋다운'

최고 경계 단계 격상 잇따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각국 정부가 경계 조치 격상에 나섰다.

프랑스 남부 퐁펠리에에는 13일(현지시간)부터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는 등 경계 단계를 최고로 올렸다고 A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툴루즈와 리옹, 그르노블, 생테티엔, 릴 지역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고 경계 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프랑스 보건 당국은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6900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이틀째는 확진자가 1만6100명까지 줄

었지만, 확진율이 11.5%까지 치솟았다.

영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3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계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11일 새로운 경계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의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의 사망자는 4만2000명을 넘어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며, 11일 하루 신규 확진자만 1만287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현재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역시 빠른 속도로 재확산이 일어나자 중앙 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트럼프, 북 ICBM 공개 진심으로 화내”

복스 기자, 소식통 인용 트윗

“김정은에 정말로 실망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북한의 열병식에 분노했다는 전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com) 소속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알렉스 워드 기사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ICBM과 자체 제작한 트럭 발사대(이동식 발사대)가 공개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트럼프가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가까운 소식통이 전했다”고 썼다. 그는 “소식통이 전하기를”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정말로 실망했으며, 그런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표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복스 기자, 소식통 인용 트윗 “김정은에 정말로 실망 표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공개한 것은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열병식 자체는 물론 공개된 북한의 ICBM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석상에 2차례나 마주 앉은 이후, 서로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작명 명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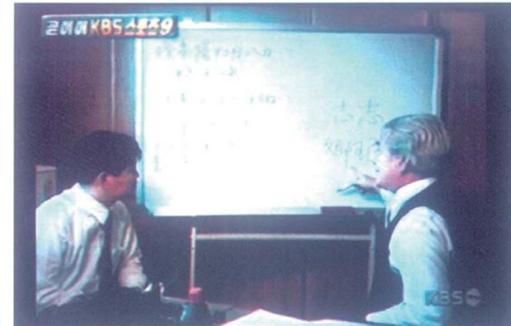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